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7. 27.(월)

한국수자원공사, 장마 이후 기상 변동 대비 녹조 대응 상황 점검

- 24일 전사 회의, 대청댐·사연댐 및 낙동강 4개소 등 조류경보 발령 대응
- 폭우 소강 이후 폭염 등 후속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추가 조치 방안 논의
- 광역 취수원 정밀 수질 조사 확대 및 지자체 정수장 대응 지원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24일 대전 본사에서 여름철 녹조 발생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녹조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 소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기상 변동성에 맞춰 선제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대응전담반을 가동해 전국 주요 수계의 오염원을 상시 점검하고 조류차단막과 녹조제거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점 중 대청댐과 사연댐 2개소에 조류경보가 발령 중이며, 이외 낙동강 4개소(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에도 경보가 발령되어 집중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안정적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나아가 향후 수온 상승에 따른 녹조 확산 가능성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도정수처리 공정은 일반 정수처리로는 완전 제거가 어려운 냄새나 미량오염물질을 오존·활성탄 등을 사용해 처리하는 공정을 말함.

이날 회의에서는 강우로 인해 유입된 영양염류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동적인 기상 여건이 녹조 증식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설비와 물순환설비 등 대응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관리 수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수용가인 지자체 정수장으로의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조류경보제 대상이 아닌 취수원까지 수질 조사를 확대해 수심별 조류·냄새물질을 정밀 분석하고 최적 취수 수심 조정과 함께, 수질 정보를 유역별 수도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공유하며 유기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조치로서 기상 변화 추이에 따라 녹조제거설비를 탄력적으로 확대 가동하고 정수처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한 합동 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상 변동성에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녹조대응전담반 운영을 총괄하는 박동학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본부장은 “집중호우 이후 기상 변동에 따라 녹조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취수원 관리와 선제적인 정수처리 강화를 통해 기상 변화 속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물환경관리처 녹조대응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상준 (042-629-4770)
		담당자	차 장	이성진 (042-629-4771)
	수도관리처 수돗물품질부	책임자	부 장	전은주 (042-629-3481)
		담당자	차 장	최세희 (042-629-34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7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여름철 녹조 발생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녹조 대응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네 번째 박동학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본부장)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 소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기상 변동성에 맞춰 선제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강우로 인해 유입된 영양염류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동적인 기상 여건에 대응하여 녹조제거설비와 물순환설비 등의 상시 가동 태세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진] 2. 7월 16일, 낙동강 수계의 물금매리 지점에서 녹조제거설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대응전담반을 가동해 전국 주요 수계의 오염원을 상시 점검하고 조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설비와 물순환설비 등을 통해 집중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기상 변화 추이에 따라 녹조제거설비를 탄력적으로 확대 가동하고 정수처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